『신앙과 학문』, 제 13권 2호 (2008. 8), 129-156.

백도기 소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실존[3]

문용식(총신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논문초록

본 논문은 지금까지 주목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명되지 않았던 백도기의『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 나타난 서술 상황을 욕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작가의 해석 방식 및 미학적 구현 양태를 탐구한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룟 유다를 테마로 한 소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은『다빈치 코드』에 이어『유다복음서』가 공개된 이후, 기독교 신앙에 대한 비판과 내부의 질문이 연이어 생겨나기 때문이다. 물론 소설 작품 하나를 분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신학적 물음과 논쟁점에 큰 보탬은 되지 못하겠지만 목사이면서 소설가인 백도기의 작품을 분석함으로 가룟 유다에 대한 여러 의문에 잘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 서사의 토대가 되는 두 기본 행위소인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고찰하여 가룟 유다와 예수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혔고, 다음으로 가룟 유다와 예수의 욕망의 거리를 서술 상황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주체인 가룟 유다는 땅의 이념을 대상으로 추구하고자, 예수가 지향하는 하늘의 이념의 궁극적인 의미를 알면서도, 자신의 이념인 대상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 한 마디로 주체인 가룟 유다는 자신의 이념이 적중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예수에게 활을 쏜 것이다. 여기서 목표 지향적인 한 인간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또한 교만하면 가룟 유다처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작가의 목소리에서 읽어 낼 수 있다.

주제어 : 서술 상황, 욕망의 거리, 행위소, 주체, 대상, 실존, 이념, 세계관, 내포 작가, 미학적 구현 양태

2008년 7월1일 접수; 2008년 8월16일 수정; 2008년 8월23일 게재 확정.

I. 서론
II. 주체(반-주체)가 추구하는 대상
III. 서술 상황과 욕망의 거리
IV. 성경적 준거와 문학적 변용
V. 맺음말

Ⅰ. 서론

그 동안 가룟 유다를 다룬 다른 작품들[1]은 평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백도기(1979)의『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은 "뛰어나게 독창적이지는 못하지만 그 나름의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가득찬 작품이며, 또한 상당히 세련된 솜씨로 잘 다듬어져 있는 작품(이동하, 2005: 116)"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비그리스도인 작가에게도 호기심을 자아낼 뿐 아니라, 독실한 신자들에게도 신학적인 문제를 안겨주는 주제로 우리가 한번쯤은 풀어야 할 과제이다(이동하, 2005: 72-116; 신익호, 1994: 55-71; 김봉군, 1997: 138-172). 이것에 대해서는 (주어)최근에 고대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복음과 댄 브라운의『다빈치 코드』와 더불어 기독교 복음과 성경의 권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김기현, 2008: 7). 또한 유다를 신학적으로 복권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한번쯤은 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논자는 목사이면서 소설가인 백도기가『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을 통해 가룟 유다의 배신에

1) 김동리의『사반의 십자가』는 1955년 11월부터『현대문학』에 연재하기 시작하여 1957년 4월호에 대단원을 지었고, 이것을 1958년 단행본으로 내였으며, 그 후 개작을 거쳐 1982년 홍성사에서 단행본으로 나왔다. 박상룡은 1963년 11월 「아겔다마」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사상계』에 발표하면서 문단에 나오게 되었다.

서 제기되는 물음과 논쟁점들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백도기의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 나타난 서술 상황을 분석하면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욕망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 문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하나는 작품에서 서사의 토대가 되는 두 기본 행위소인 주체(반-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Anne He'nault, 1983: 49-51).[2] 즉 주체인 가룟 유다가 현세적 구원을 대상으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주체의 반대극에 있는 예수가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상을 위해 어떤 특징들을 보이고 있는가? 등을 서술 상황에서 고찰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주체(반-주체)가 추구하는 욕망의 거리를 서술 상황을 분석하는 가운데 고구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작가의 세계 이해 및 해석 방식과 연루된 문제이며, 텍스트의 미학적 효과와 주제적 의미를 입증하는 '형식화된 주제적 요소'를 탐구하는데 기여할 것이다(우찬제, 2005: 269-270).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작가의 세계 이해와 해석 방식 및 미학적 구현 양태를 탐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Ⅱ. 주체(반-주체)가 추구하는 대상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의 가장 기본적인 서사적 관계는 두 주요 행위소를 규정짓는 주체(반-주체)와 대상의 관계이다.[3] 주체와 대상은 기본 언술의

2)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며,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에 나타난 정체성은 행동의 진전에 따라 존재 밀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주체를 가룟 유다로 본 것은 본 작품이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반-주체로 설정한 것은 주체의 반대극에 있기 때문임을 밝힌다. 일반적으로 문학에서 주체는 긍정항에 놓이고, 반주체는 부정항에 놓이는데 본 작품은 이러한 도식에서 벗어나 반주체가 긍정항에 있고, 주체가 부정항에 있다.

양 극단에 놓인 항으로써, 주체-대상 범주의 정체성은 행동의 진전에 따라 주체의 존재 밀도를 높이는데, 주체는 현세의 구원이라는 땅의 이념을 지향한다. 반면에 반주체-대상의 관계는 행동의 진전에 따라 하늘의 이념이라는 정체성을 지향하며 신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 밀도를 높이는 가운데 담화를 전개하여 나간다.

1.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

백도기의『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을 보면 가룟 유다라는 주체의 면모를 서두의 첫 문장에 제시하고 있다. 일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시작하는 서두의 첫 문장을 보자. "유다는 나의 친구였다(7)."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의 첫 단락은 "오, 나의 사랑하는 친구(7)"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는다.[4] 누구나 이 인용문을 읽고 쉽게 인지할 수 있듯이, 서술자는 유다가 친구라는 정보를 주는 동시에 감탄사를 곁들인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여 감정의 전이로 단락을 맺는다. 즉 유다가 나의 친구라고 텍스트를 열고, 유다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라고 확정하면서 첫 단락의 텍스트를 닫는 것을 우리는 작가의 단순한 의도라고 볼 수 없다. 우리는 텍스트의 시작과 첫 단락의 종결을 보고, 앞으로 나와 유다의 친구로서의 거리 좁히기가 서술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곧 바로 이어지는 첫 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빗나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문장에 "나는 이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친구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7)."라는 발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의 서두가 주는 정보로, 우리는 주체의 삶에 대한 추적이 형상화될 것이라고 예단할 수 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이란 제목에서 밝혀지고, 서두의 첫 문장에 명시

4) ( )안의 숫자는『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의 페이지 숫자이다.

되어 있듯이 주체는 가룟 유다이다. 본 작품에서 작가는 왜 그를 주체로 삼았을까? 서술자는 랍비 친구의 "유다는 신(神)을 모살(謀殺)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이 사실은 인류가 존속되는 한 더 심각하게 논의되어질 것이라고 예언(7)" 한 말을 빌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서술자는 랍비를 초점 대상으로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신을 모살(7)"하려고 하였는가? "배신이나 배반을 밥먹듯 하고 살아온 인간사에 있어서 왜 하필 유다의 배신만이 심각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8)"라는 문제의식을 독자에게 상기시켜 본 테마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사실 신을 배반하고 모살한 주제는 가룟 유다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모든 작품의 공통된 관심사인 동시에 그를 다룬 텍스트를 역동적으로 만들게 하는 동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가룟 유다를 단순하게 규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문학이나 영화, 뮤지컬 등에서 그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왔다(김기현, 2008: 16). 앞으로도 가룟 유다는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사내로 남아 작가들의 해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텍스트는 주체가 가룟 유다이다. 그런데도 작가는 텍스트의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가룟 유다가 직접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발화하지 않게 장치하고 있다. 텍스트에서 그의 발화를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 후반부 이후부터이다. 중반부까지 주체인 가룟 유다는 작품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가 텍스트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체인 가룟 유다의 사적 정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작가는 서술자를 통해 서사적 과거 사건을 지각적으로 묘사하거나, 과거 회상 서술로 그에 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먼저 서술자가 외적 소급제시로 드러내는 과거 사건을 지각적 묘사로 진술하는 부분을 보자.

① 유다는 판에 박은 듯 부친을 닮았다. … 어찌 보면 음울하고

> 적막하고 고독하게 느껴지는 회색 눈동자, 사람을 대할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엇비껴 바라보는 자세 등이 그렇게도 비슷할 수 없었다(8 번호 : 인용자).
>
> ② 말없이…골똘한 생각에 잠겨 있기도 하고, 갑자기 충동적으로 몸을 일으켜…도전적인 자세로 어떤 미지의 힘과 대결해 나가려는 몸짓 같았다(9).

①에서 서술자는 "유다는 판에 박은 듯 부친을 닮았다"고 한 후 부친을 세부 묘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를 묘사하고 있다. 야무진, 뚜렷한, 음울한, 고독한 등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어를 통해 서사의 주체가 야무지지만 소외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사람을 대할 때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엇비껴 바라보는 자세를 통해 그와 세계와의 구체적인 접촉양태가 비판적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기에 ②에서 가룟 유다가 혼자 있을 때의 장면을 지각적으로 묘사한 것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의식의 창에 비친 세계상은 "미지의 힘과 대결"하고자 할 따름이다. 그런데 그것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몸을 일으켜 도전적인 자세로 주변을 노려보는 내적 분열로 의식된다. 그런 상태의 주체이지만 다음 과거 회상 서술과 직접적 제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시대를 가름할 줄 아는 식견"을 갖고 있다.

> 마치 두 마리의 투계처럼 지기 싫어하는 성미였다.…고집 센 사내가 되어갔다.…일단 내린 결정이나 결론 요지부동이었다.…시대를 가름할 줄 아는 식견도 가지고 있었다(7~8).

요컨대 서술자는 주체에 대한 정보를 과거 회상 서술, 지각적 묘사, 직접적 제시 등의 방법으로 서로 긴밀히 호응하도록 수사학적으로 짜고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는 "그는 뭐라고 외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내면에서 어떤 고뇌가, 어떤 격정이 이글거리고 있는지 도무지 헤아릴 길이 없었다(9)." 라고 하여 그의 잠재된 의식에 대한 정보를 지연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는 폐쇄적 존재가 되었는가를 추동해내고자 하는 서술자의 욕망에 참여하게 된다. 첫째, 서술자는 그것을 온 우주에 대해 적대적인 부친의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가룟 유다의 부친은 회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어서 "자기의 아내를 비롯해서 자식새끼, 신, 목욕, 세수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온갖 일에 싫증을 내고 투덜거리는(8)" 그런 인간이었다. 이와 같은 서술자의 정보는 독자에게 유다가 현실을 닫힌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동인이 가정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독자들은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유다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순종과 복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물이 되었다고 예단하게 해 준다. 둘째, 세계와의 긴장관계 때문이다. "기사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15)" 허물어져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너무 절망감이 커서 이제 신을 기다리지도 않을 정도이다. 일상적 생존이 힘들 정도이며, 이제 아무런 희망마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대의 현실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가? 서술자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이것은 정치적 의미인가 아니면 무슨 이유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가 도대체 뭘 바라고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을까?(17)" 예수를 대망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예수의 농간에 현혹된 것일까? 매일 한 번씩 변소에 드나드는 자를 신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감이 극도에 달한 역사적 상황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내면에 폭풍의 핵이 도사리고 있는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운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여기에 와서 비로소 서술자는 주체인 가룟 유다와 반주체인 예수와의 관계 설정이란 문제를 작품의 중심 과제로 부각시킨다.

"유다의 눈은 역시 혜안이 있었던가?(19)"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는 혜안의

실체는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장면화된다. "갈릴리 해변가에서 속삭인 단조로운 울림은 점점 거센 파문을 일으키며 유대의 전토에 퍼져나간다(19)." 이 장면 이후부터 예수의 행적 확인하기와 가룟 유다의 행동 관찰하기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주체가 추구하는 대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꿈이 사라진 역사적 현실에서 강박 증상을 보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추종하면서 새롭게 살아가기를 꿈꿀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시대적인 예지를 지녔지만 철저하게 소외를 느끼는 주체인 가룟 유다의 꿈의 서사가 긴장 속에서 역학 관계를 유지한 채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를 가늠하면서, 서사 공간에서 주체가 지닌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게 된다.

2. 반주체가 추구하는 대상

앞 절에서 서술자가 주체인 가룟 유다의 특징적인 면모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서술자가 반주체인 예수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서술자는 예수를 직접 목격하기 전에, 제 삼자로부터 소문으로 전하여 들은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예수를 탐색한다. 서술자는 소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대의 최고평의회나 최고법정 의원들이 예수를 "비둘기 중에서도 약간 정신이 돌아버린 축에 드는 가여운 존재(17)"로 상징화한 것이 잘못이며, 예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전당국자들의 고정관념 이상으로 이미 민중들 사이에 환상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점으로 제시한다. 즉 예수에 대한 종교지도자들의 평가, 그를 조망하는 서술자의 반성적 인식, 그의 기적을 접하게 된 인물들의 발화 등 여러 층위의 창에서 예수를 다룬다. 작가는 진실들에 다가가기 위해 상호 수행적 글쓰기를 시도하여, 예수의 진실된 실체를 역동적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관심의 대상인 예수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살펴보자. 예수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다른 시공간에서 분산된 형태로 끊임없이 담론을 생산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이상한 형태의 선교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그는 사생아로 출생하였고, 또한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등등을 들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서술자는 예수에 대하여 약간 정신이 돌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양상을 소식으로 접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평가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수행한다. 예수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속삭인 희망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으며, 특히 예수는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것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서술자는 이러한 희망과 소망을 접한 후에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던 예수에 대한 생각을 풍요를 꿈꾸기 시작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수정한다.

갈릴리 해변의 장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서술자는 대상인 예수의 모습을 봄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 서술자는 예수를 초점자로 하여 예수를 봄 그 자체로 보고, 예수의 모습을 자연 풍경과 호응하게 그리는 한편, 봄의 풍요로움이 자연 때문에 조성된 것이 아니라, 군중들 사이에서 고요히 솟아오르고 있는 예수에 의해서 활력이 지펴진다고 보았다. 봄의 조성자인 예수는 주위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평정을 잃지 않고, 일부러 초연한 척하려고 애쓰지도 않으며, 조용한 가락으로 군중들을 대면하고 있다. 서술자는 그 기품에서 예수를 봄으로 대치한다. 하지만 서술자는 예수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도 외로워 보인다고 그를 내적 초점화한다. 서술자는 보다 심층적으로 예수가 부드러우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강렬한 눈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가 인간 실존의 근원적 진리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처럼 서술자는 자신과 대면한 예수가 공간과 조응하면서도 그것을 지배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한편, 예수를 내적 초점화로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응시하게 하는 서술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서술자가 예수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결정적으로 변모시키게 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외된 인물들에 대한 예수의 본질적 통찰인데, 서술자는 예수의 사랑과 능력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 장면 제시 기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절름발이 사내는 예수가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자 너무 감격하여 자신이 정상으로 돌아온 줄도 모르고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흐느껴 울고 있다. 이 장면 제시는 서술자가 예수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 관계성의 회복을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서술자는 내적 초점화한 예수에 대한 외로움의 실체를 독자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논평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서술자는 예수가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의식하면서, 그들과 다른 의지를 보이는데 예수가 군중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인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와 군중의 의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갈등의 요체는 예수의 의지가 현실적으로 소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예수는 열린 세계의 논리로 닫힌 세계의 논리를 깨뜨리고자 논쟁을 건다. 닫힌 현실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가난은 가난이고, 병은 병이고, 배고픔은 배고픔이다. 1은 1이고, 4로 나누면 1은 1/4이 된다. 이 엄격한 논리의 토대 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설계해 나간다. 1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다른 세 사람과 공유하라고 한다면, 그의 재산은 1/4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절대적인 손실이며 피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실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닫힌 세계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 주는 한편 하늘의 가치를 바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군중은 예수의 뜻을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 이에 예수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서술자는 논평과 보고서의 양식으로 예수의 신비를 부각시키면서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부추긴다. 예수는 진정으로 질병은 질병이 아닐 수 있으며 손실은 손실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군중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즉 1은 1이 아닐

수 있으며, 4로 나누더라도 그것이 1/4로 감소되는 대신 오히려 2나 3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을 군중들이 이해하기를 예수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예수는 열린 세계의 진리가 닫힌 세계의 논리와 다르다는 것을 군중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군중들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전부가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33)."고 서술자는 보고한다. 그리고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일련의 열린 진리를 더욱 발전시킨다.

>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오.(중략) 사랑하는 자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니, 심지어는 대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80).

이와 같이 예수는 불안과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에 처한 군중들에게 거절을 당하면서도 기회만 있으면 희망의 씨앗을 뿌린다.

정리하면, 예수에 대한 서사적 물음과 그 탐색은 보고와 논평이 주를 이루는데, 대체로 예수를 관찰하면서 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다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위해 서술자가 예수의 욕망에 전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여기에 작가의 서사전략이 개입되는데 그것은 꿈이라는 장치이다. 서술자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접하게 된 그의 눈길을 꿈속에서 생생하게 느낀다. 서술자가 꿈의 지대에 입사한 것이다. 서술자를 꿰뚫어 보는 예수의 눈길,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응시하게 하는 방향 전환으로, 서술자는 은연 중 예수가 대상으로 삼는 사랑의 나라를 욕망하게 된다.

III. 서술 상황과 욕망의 거리

어떤 소설이든지 작가는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를 조율하게 마련이다.

> 작가는 욕망에 부합하는 인물에게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멀게 조율할 것이다. 실제 텍스트 안에서 이런 양상은 서술자의 태도를 포함한 서술 상황을 통해 현상화된다(우찬제, 2005: 279).

소설에서 주인공의 행위나 의식 내지 사건은 흔히 주인공의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 욕망은 구체적인 서사적 상황에서 욕망하는 주체로 하여금 욕망하게 하는 타자의 성격과 그 관련 양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주체 혹은 주인공의 성격을 심층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우찬제, 2005: 134). 이를 통해 심화된 인간 이해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도 가장 문제적인 인물인 가룟 유다를 예수와의 관계에서 탐구할 때 서사적 물음과 그 풀이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구체적인 서술 상황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작품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누가 보더라도 가룟 유다는 서사적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이다. 작품에서 서술자가 사창가에서 가룟 유다의 여동생 라헬을 만나 그녀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동안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건은 가룟 유다가 연루된 가운데 진행된다. 서술자가 가룟 유다의 여동생 라헬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 동안의 이야기도 가룟 유다의 내면의 정황을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될 정도이다.

앞 절에서 언급했듯이 작가는 작품의 중반부까지 가룟 유다를 초점자로 제시하는 빈도가 낮다. 대신에 서술자에 의한 분석적 심리 서술, 혹은 서술자의 중개의 대상으로, 전지적 시점 등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반 이후부터 서술자가 가룟 유다와 예수를 초점자로 제시하여 두 인물의 욕망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 상황의 특성을 정리해 보자.

첫째, 갈릴리 해변에서 작가가 가룟 유다와 예수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율하

는 서술상황을 살펴보자.

서술자는 예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간접제시의 방법으로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① 친구여, 자아, 함께 갑시다(29).
>
> ② 라말! 라말! 너도 들었지? 분명히 들었지! 예수님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셨는지 들었지! 응? 들었지? 친구라고, 친구라고 하셨어!, 친구라고!(29)
>
> ③ 예수님, 예수님, 이 요수아는 다리 같은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진정입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남들이 절더러 절름발이 요수아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29).

①에서 예수는 사회적으로 불우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부르고 있다. ②에서는 그러한 말을 듣고 기뻐하는 무리들의 반응이 나오고, ③은 장애인으로 소외를 당한 사람들이 다리 고침을 받아 정상인으로 회복된 것보다 자기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예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 보이는 발화이다.

반면에 가룟 유다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서술자의 분석적 심리 서술과 서술자의 중개가 우세하다. 서술자는 갈릴리 해변에서 가룟 유다를 보는 순간, "갈릴리의 봄을 갑자기 조락의 계절로 변화시키는 음울한 회색빛이었다(33)." 라고 제시하여 그에 대한 존재의 무거움을 나타내 보인다. 서술자는 가룟 유다가 스승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이렇게 될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46)'라고 비판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고 주체의 심리를 분석하는 한편, 가룟 유다의 시선을 의식한 예수에 대해서는 "기묘한 이해자의 시선을 피했다(46)."라고 전지적 시점을 사용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술자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예수와 가룟 유다

사이에서 불편한데, 이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이 소설의 전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대 지평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군중을 중심으로 양극에 존재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와 두 사람의 시선이 어떻게 교차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기대가 대표적인 것이다.

둘째, 유월절 절기를 약 한 주간 가량 앞둔 시점에서 가룟 유다와 예수 사이에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인다. 서술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내적 독백이나 분석적 심리 서술보다는 대화를 통한 간접제시 방법을 사용하여 두 초점자 사이의 갈등을 극명하게 제시한다. 거기에다 군중들의 열기에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동료들과 그들에 대한 연민과 비웃음을 보이는 가룟 유다, 예수의 푸른 눈빛과 가룟 유다의 곤혹스러운 얼굴 등이 분석적 심리로 서술되고, 예수와 삭캐오, 가룟 유다 사이의 관계는 대화로 제시된다.

초점 대상이 되는 삭캐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양극에 가룟 유다와 예수가 존재한다.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삭캐오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 민족 반역자, 수탈자의 천인공노할 죄악(78)"을 저지른 부정적 타자이다. 가룟 유다는 삭캐오가 돈에 노예가 되어 "로마놈들의 주구가 된(78)," "로마놈들의 똥구녕을 핥아먹는(78)" 가난한 백성을 수탈한 자라고 단언한다. 이러한 인간이기에 가룟 유다는 그를 인간으로 취급할 수 없고, 동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한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욕망의 대상이 조국 유대의 해방이라는 현세적 목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에게 삭캐오의 회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며, 예수의 행동 역시 "벨이 곤두서는(78)" 일이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를 초점화하여 관찰하면, 그가 욕망하는 대상은 반사회적이거나 타락한 형태로 돈을 벌었더라도 그 중심에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예수는 가룟 유다가 삭캐오에게 동족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비난하자, 원수 사랑이라는 하늘의 담론을 제시한다.

예수와 세계와의 구체적인 접촉 양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은 권세자들이 영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81)"라는 한 사람의 외침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발화에 힘입어 예수는 "무릇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합니다(82)."라는 은유적 표현을 견지한다.

여기서 작가는 가룟 유다의 욕망을 통해 우리에게 고뇌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현세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주는 있으며, 예수의 욕망을 통해 계급과 신분, 빈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허허롭게 뛰어넘는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의식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바짝 긴장하며 "깊은 사고의 심연에 빠져든다(82)." 그런 가룟 유다의 상태를 보고 서술자는 그의 얼굴이 "두 개의 얼굴로 보였다. 하나의 얼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에 싸여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은 비탄과 저주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82-83)."라고 평가한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전형적인 현실주의자의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한편 예수의 욕망의 인력이 그에게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즉 "두 개의 얼굴"이란 형상화에서 가룟 유다의 예수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셋째,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에게 값비싼 향유를 부은 장면에서 두 초점자의 세계관이 분명하게 제시된다. 이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의 세계관과 앞으로의 목표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데, 예수는 가룟 유다가 실용적 행로를 걸어갈 것이라고 암시를 한다. 서술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엄청난 일에 놀라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렸다(96).

② "저게 이 집의 둘째 딸 마리아일세."(중략)
그러면서 그 사내는 혀를 빼물었다(96).

③ "마리아 자매, 그대가 한 일을 세상이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오."
"스승님,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낭비였던가도 길이 기억하게 되겠지요."(중략)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에 이런 낭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오히려 스승의 누가 되리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마리아 자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요?(97)"

④ "유다 형제, 그대의 말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오.(중략) 죽은 자는 온 몸에 기름을 바르오.(중략)"유다 형제 그대만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97-98)."

작가는 ①과 ②에서 보듯, 충격을 받고 있는 군중들을 등장시킨다. 즉 ①은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을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뜬 군중에 대한 외적 초점화의 장면 묘사이다. ②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던 여자가 마리아라는 것을 알고 한 사내가 혀를 빼는 장면 묘사이다. 이렇게 서술자는 반복 서술을 통해 충격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작가는 ③과 ④에서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룟 유다와 예수의 발화를 제시하여,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가 가고자 하는 인식적 행로를 인지시키고 있다. ③은 일 년 연봉치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한순간에 그것도 발에다 부어 버린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본 가룟 유다의 불만의 토로이다. 돈을 명시적으로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가룟 유다가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데 왜 낭비 하냐고 마리아에게 질책하는 파열음이다. 그런데 예수는 어처구니없는 그 일에 대해 마리아를 참된 예배자라고 칭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97)"이 그 안에 있으며, 가룟 유다에게 "그대만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98)."는 발화를 남긴다. 두루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것은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알고도 왜 불만을 토로하느냐는 질

책성 발언이다.

예수의 질책에 가룟 유다는 고개를 떨구다가 번쩍 치켜들고 "눈에서 형형한 불꽃이 튀고 뺨마저 심하게 떤다(98)." 예수는 이러한 가룟 유다를 바라보다가 눈가에 눈물을 맺는다. 두 초점자 사이를 오가던 서술자는 예수가 "유다 형제, 그대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요(98)."라고 했다는 말이 떠올랐다고 하여 독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앞으로 실용적 행로를 걸어갈 것인지를 유추하게 한다.

넷째,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 문제에서 작가는 가룟 유다의 편에 서있지 않다.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작가의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가가 욕망하는 주체는 예수이다. 작가는 예수의 지향의식을 욕망하고 있기에 예수에게 심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그렇다면 작가는 심리적으로 가룟 유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작가는 가룟 유다의 이념과 욕망에 동조할 수 없기에 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지만, 가급적 대화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예수를 군중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술자와 가룟 유다가 대화하는 장면이 그 한 예이다.

> "보게나, 스승은 나귀를 타고 스스로 평화를 이 세상에 던져 주려 온 자로 자처하고 나섰네. (중략) 그에게는 능력이 있어. (중략) 어느 하세월에…병을 고쳐주고 있단 말인가? (중략) 사랑하기 전에 먼저 원수를 쳐 물리치고 그 다음에 신음하는 네 동족의 아픔을 싸매고 어루만져 줘야 하는 게 아닐까? 나의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어. (중략) 자네 도박해 본 적이 있나?…진짜 도박 말이야.…일생 일대의 도박을 해…사랑이 불의 앞에 섰을 때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게 해 준다면…그는 달라질지도 모르네…. 달라질지도…(104)."

위의 인용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전모를 알 수 있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이념을 이해는 한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신음하는 동족의 아픔을 싸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두꺼운 유리벽에 차단되듯, 예수의 뜻을 알면서도 마지막 힘을 보아 유리벽을 향해 돌진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본 작품에서 가장 문제적인 대목이다. 초점자인 가룟 유다의 심리를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에 나오는 가룟 유다처럼 '원치 않는 운명적 역할을 하도록 강요받은 인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시각에 대해, 한 마디로 일축하고 있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그리스도의 최후의 유혹』처럼 고뇌하며 흔들리고 있지 않다(김기현, 2008: 16-17).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진짜 도박을 하고자 결심하고 있는데, 그는 끝내 예수의 우정과 호의를 거절하고, 어둠의 길을 가고자 결단을 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죽을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허나 죽고 싶은데 죽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117)"에 관심을 갖고서 자기의 목을 걸고 도박을 한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욱 엇나가는 길을 걷고자 하는 영적 실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서술자는 가룟 유다의 의식의 창에 비친 "어둠의 뭉치(117)"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만든 사람이다. 소수의 몇 사람에게 선택된 축복을 가룟 유다는 받았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렸다.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선택하지 못하였다.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하였다는 예수의 말씀 안에는 그가 운명적으로 배신자로 태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축복을 선택하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나는 나의 스승을 배신할 뜻은 없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룟 유다는 그 누구보다도 현실 정치의 변화를 잘 안다. 가룟 유다는 스승을 불가사의한 분이고, 인간에게서 느낄 수 없는 깊은 외경심을 가진 분이며,

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생각한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가 아니면 현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승을 배신할 뜻(137)"은 없지만, "자신의 생각이 옳다(139)."는 주장을 굽힐 수 없기 때문에 스승인 예수가 자신의 행동을 배신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승이 무서운 "독선"을 행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138). 가룟 유다는 "왜 자신을 죽이려고 날뛰는 원수들 앞에서는 그렇게도 무능력해질까?(143)"라고 하여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말한다.

다섯째, 가룟 유다의 배반의 키스 장면에서는 근접 관찰과 행동에 대한 해설을 하였고, 은전을 받고 스승을 판 것에 대한 후회에 대해 논평의 형식을, 자살에 대해서는 장면 묘사를 하여 독자로 하여금 가룟 유다의 실존, 즉 자기 확신에 찬 죄의 결과를 성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룟 유다는 은 삼십을 받고 예수를 팔기로 결심한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신의 의도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가 민중의 메시야로 나설 것이라는 마지막 여지에 희망을 걸고 스승인 예수를 판 것이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유발할 것인가를 보지 않고 예수에게 키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유다는 똑바로 걸어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하고 말하며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거칠고 절망적으로 들리는 목소리였다.
> 내 눈에는 유다가 예수를 껴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쓰러지려는 유다의 몸을 예수 편에서 얼싸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 그 때 나는 신음소리와 같은 유다의 음성을 들었다.
>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151)."

가룟 유다는 신원 확인의 수단으로 자신의 스승이며 무죄한 분인 예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천연덕스럽게 인사하며 배신의 키스를 한다. 이 장면을 작가

는 서술자의 근접 관찰로 묘사 대상인 가룟 유다의 의식을 길어 올린다. 배신자의 메스꺼움을 사랑으로 얼싸안아 '왜소성/위대성'을 부각시켜, 배신 장면을 상징화한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연대와 일치를 확인하는 평화의 키스를, 분열을 촉진하는 저속한 입맞춤으로(김기현, 2008: 110)" 변화시킨 배신자의 키스, 그 순간에도 "선생님, 아직도 늦지 않았다."하며 자신의 욕망을 예수에게 강요하는 가룟 유다를 통해, 내포 작가는 타락의 현장 가운데도 상황을 합리화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불법재판을 통해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고 빌라도에게 이송되는 순간에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결국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은 삼십을 제사장에 돌려준다.

> 그들이 있는 접견실에 홀연히 유다가 나타나서 그들 앞에 은전 서른 량을 내던지며(중략)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과 원로의원 학가이의 말에 의하면,…그의 목소리는 죽은 혼의 절규마냥 무섭게 들려 몸이 오싹했다고 한다(162).

작가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보도한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책략이 현실이 되고서야,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바로 보았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제야 안 것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당신들의 몫이니 도로 가져가시오"라고 말하며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던져 버리고 사라진다. 가룟 유다는 은 삼십을 도로 갖다 주고, 예수의 무죄를 선언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 서술자는 거기에 있었던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오른," "죽은 혼의 절규"라는 논평으로 유다가 행한 일이 연극이 아니라 현실이 된 상황을 전한다. 가룟 유다는 악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악인이 된 것이다(김기현, 2008: 96). 가룟 유다는 무죄한 예수를 살해한 공범이 된 것이다.

가룟 유다는 때늦은 후회를 하였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 만약 그가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가서 용

서를 빌었어야만 했다. 그의 자살 장면과 그에 대한 논평이 그가 회개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

>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 시각, 시온의 언덕 골짜기에서 한 사내가 목을 매어 죽었다.(중략) 아무리 무거운 인간도 감당하고 남을 만한 질긴 밧줄이었다. 그런데도 그 끈이 끊어졌던 것이다. 그 사내의 속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회한의 무게가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165).

가룟 유다는 예수가 자신의 의도대로 죽지 않고 민중의 메시야로 나설 것이라는 희망이 좌절되자, 자살을 하고 만다. 가룟 유다는 예수의 행동과 말씀의 진의를 이성으로는 이해하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거절하였다. 이처럼 가룟 유다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숙명적인 약함까지도 인정하거나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166)."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가룟 유다 속에 들어 있는 고통과 회한의 무게, 그것을 질긴 밧줄도 감당할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그 계획의 완전성을 믿고 아무에게도 굽히려 하지 않는 저항자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IV. 성경적 준거와 문학적 변용

텍스트에 수용된 성경적 준거와 문학적 변용은 가벼이 볼 수 없는 문제라서 성경적 인물을 허구적 인물로 형상화하는 가운데 어떤 변이를 일으켰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가룟 유다에 대해 텍스트와 성경의 준거체계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가? 축소, 확대, 변용 등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먼저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의 배신 행적에 얽힌 기록을 보자. 이 사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각기 조금씩 차이가 난다. 유다의 배신 행적은 마태복음 26장 14-16절, 마가복음 14장 10-11절, 누가복음 22장 3-6절,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각기 나온다. 각 성경에 기록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배신 것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행동 동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에서는 유다가 주도적으로 대가를 요구하였고, 이것은 요한복음(12:6)에서 유다가 도둑이었다는 사실이 뒷받침한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유일한 동기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동기, 어쩌면 일차적인 돈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김기현, 2008: 38).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거나 저주받아 죽게 되는 기록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7장 1-10절과 사도행전1장 18절에 나타난다. 마태복음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삼십을 성소에 던져 넣고 목매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가 자살하자 대제사장들이 의논하여 피밭이라고 일컫는 밭을 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반면에 사도행전에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삯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다 흘러나온지라."라고 하여 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유다의 최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태복음은 후회와 뉘우침으로 인한 자살로, 사도행전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차이가 난다.

성경에 나타난 가룟 유다를 좀더 깊이 분석한 글을 살펴보면, 첫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스스로 선택해서 팔았으며, 둘째, 가룟 유다는 도둑으로 되어 있고, 셋째,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언제나 제3자로 객관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넷째, 가룟 유다는 정신분열증 증세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위의 관점을 인정한다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권력욕이 강하며 지상의 영화에

대한 욕망이 강하고, 그 욕망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고뇌하며 후회하다 자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하용조, 1994: 365-372).

이제 백도기가 텍스트에 형상화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성경의 준거와 비교해 보자. 텍스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마태복음에 충실하고자 하면서 그것을 변용하였다. 작품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가룟 유다와 예수의 대립을 정의의 이념과 사랑의 이념 사이의 대립으로 설정해 놓고, 정의라는 이념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좌절한 가룟 유다의 실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권력욕과 지상의 영화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반하여 백도기는 가룟 유다를 이상주의자로 형상화하였다. 텍스트에서 가룟 유다를 이상주의자로 그릴 때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가룟 유다가 도둑으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씀하신 점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예수는 가룟 유다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예수가 가룟 유다에게 속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관점이다. 정의를 부르짖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면, 텍스트에 일관되게 형상화하고 있는 이상주의자 가룟 유다는 일순간에 무너지고 만다. 텍스트에서 백도기는 가룟 유다가 도둑이라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영웅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텍스트를 보면, 가룟 유다는 천리안이며, 미지의 힘과 대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인간적인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작가의 서술 태도와 인물 형상화는 가룟 유다를 이상화시킬 위험이 크다. 우리는 금고의 돈을 빼돌렸다는 요한의 기록을 토대로 가룟 유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만큼 "이상주의적이지 않고 도리어 현실주의자일 공산이 크다(오경준, 2004: 68-83)."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이유를 보면, 성경은 돈과 사탄의 개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마 26:15),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

가서 예수를 배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도기는 텍스트에서 전반적으로 마태복음의 관점을 취하면서도 텍스트에서 돈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것을 텍스트에서 간과한 것은, 백도기가 가룟 유다 배신의 일차적인 동기를 변용시킨 것이다. 또 백도기는 텍스트에서 예수 배반의 동기에 사탄의 개입도 다루지 아니하였다. 백도기는 텍스트에서 고집이 센, 무언가 욕망하는 것은 끝까지 이루고야 마는 인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 텍스트에서 예수는 성경과 일치하게 형상화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너무 이상화되었다. 이것은 작가가 가룟 유다의 실존을 부각시키고자 한 주제 의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가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가장 강조하고자 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의 거듭되는 호의와 우정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어둠의 세계를 선택한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에서 차지하는 가룟 유다의 입장이 운명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철저하게 가룟 유다의 선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작가의 주제론적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행동의 책임이 유다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세운 음모가 분명하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는 공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관점이다. 작가는 작품의 말미에 예수를 부인했다가 회개한 베드로를 부각시키고, 베드로의 배반과 예수의 용서, 가룟 유다의 배반과 저주를 대조시킴으로써, 가룟 유다의 배반을 독자에게 반추하게 한다.

Ⅴ. 맺음말

본 논문은 지금까지 주목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명되지 않았던 백

도기의『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에 나타난 서술 상황에 대해 욕망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작가의 해석 방식 및 미학적 구현 양태를 탐구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인물을 서사의 토대가 되는 두 기본 행위소인 주체와 대상의 관계로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우리는 앞에서 작가가 텍스트의 중반부까지 주체인 가룟 유다가 직접 발화하지 않게 서술 상황을 설정하고, 대신 그에 대한 정보를 외적 소급제시로 과거사건을 지각적 묘사로 진술하거나 과거 회상 서술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작가는 지각적 묘사를 통해서는 인물의 성격을 리얼하게 제시한다. 그런 가운데 작가는 가룟 유다의 내면 갈등이나 잠재된 의식을 보여줄 때는 서술자의 발화로 주체가 지닌 존재의 무거움을 느끼게 한다. 그 존재의 무거움은 주체가 대상에 대한 열망의 정도와 깊이 있게 관련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표지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반주체인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를 초점자로 제시하여 독자로 하여금 예수를 응시하게 하는 한편, 예수에 대한 논평과 보고양식을 사용하여 사랑의 나라를 주창하는 예수의 신비를 부각시킨다.

두 번째 과제는, 구체적인 서술 상황에서 작가의 욕망의 거리를 측정해 보는 일이다. 그 결과 욕망하는 인물로 조망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중반부 이후부터 가룟 유다를 초점자로 제시하기도 하고 대화나 분석적으로 심리를 서술하여, 그가 욕망의 대상에 포박되어 있음을 리얼하게 보여준다.

반면에 예수의 경우에는 중반 이후부터 대화에 의한 간접제시가 주를 이루며 서술자의 중개 혹은 연루 정도가 가룟 유다에 비하여 약하다. 이 같은 서술 상황은 작가의 욕망이 예수 쪽으로 경사되어 있음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작가는 대화라는 간접제시의 방법으로 예수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라는 측면에서 작가는 예수에게 가깝고 가룟 유다에게 멀다. 중반이후 서술자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직접적 논평이나 보고

등을 통해 직접 개입하는데, 이것은 가룟 유다의 배반에 얽힌 주제적 의도를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작가의 서사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와 서술 상황의 분석으로, 작가는 텍스트를 통해서 잘못된 욕망을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성취하려는 목표 지향적인 한 인간의 파멸된 실존을 분명하게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술 양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 또한 대상을 잘못 열망하면 가룟 유다처럼 동일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작가의 목소리을 준별할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성경적 준거와 문학적 변용을 살펴, 작가의 주제론적 의도를 확인하는 한편, 성경이 준거에서 벗어나 가룟 유다를 너무 이상화시킨 점을 지적하였다. 본 작품은 해석의 에너지가 많은 작품이니 만큼, 더 심화된 후속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기현 (2008),『가룟 유다 딜레마』, IVP, 7.
김봉군 (1997),『한국소설의 기독교의식 연구』, 민지사.
김성진 (1994),『아폐스』, 문학통신사.
_____ (1997),『가룟 유다의 진실』, 문화전사.
백도기 (1979),『가룟 유다에 대한 증언』, 전망사.
신익호 (1994),『기독교와 현대 소설』, 한남대학교출판부.
오경준 (2004),『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 홍성사.
우찬제 (2005),『텍스트의 수사학』, 서강대학교 출판부.
이동하 (2005),『한국현대소설과 종교의 관련 양상』, 푸른사상.
하용조 (1994), "가룟유다,"『그 말씀』, 두란노출판사, 365-372.
Anne He'nault (1983), *Narratologie, Se'miotique ge'ne'rale*, 홍정표 역 (2003),『서사, 일반기호학』, 문학과 지성사, 49-51.
Morley Callaghan (1984), *A Time for Judas*, 이현일 역 (1996),『가룟 유다의 고백』, 한솔 미디어.

Abstract

The Existence of Judas Iscariot Portrayed in Paik Dogi's Novel Testimony to Judas Iscariot

Yoeng Sik Moon(Chongshi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narrative context of the sufficiently noteworthy yet undiscussed novel of Paik Dogi, Testimony to Judas Iscariot, while taking a look around varied aspects of aesthetic realization and defining human desire as its main theme.

The reason why a novel on Judas Iscariot is to be examined at present is that, after the consecutive publication of Da Vinci Code and Gospel According to Judas, both the outer criticism against Christianity and the inner questions keep fueling controversy. A mere analysis of a novel may not contribute much to addressing all the theological questions and arguments on Judas Iscariot; however, it will surely help to deal with and dispose of certain doubts on him since the work was produced by a minister-turned novelist.

Above all things, the two basic agencies subject and object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shed light on what Jesus and Judas Iscariot had in mind. Then, the distance between Judas' and Jesus' desire is discussed with focus on the narrative context depicted in the novel.

To sum up, the subject Judas Iscariot continues to push forward the object, namely, his ideology to the end so as to pursue his worldly goals despite the fact that they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heavenly ideals that Jesus likes to pursue. Metaphorically saying, Judas Iscariot the subject shot an arrow into Jesus confidently believing that his ideology would hit the target. Here comes a goal-oriented human existence, and it approaches us as an aphorism that we too can share the same fate as him if we are conceited. The voice of the implied author tells us so.

Keywords : Subject, Object, Relation Subject-Object, Implied Author, Agency, Aspects of Aesthetic Realization, Narrative Context, Ideology, Human Existence, Desire